

# 공포의 9번 타자 김선빈 '뜨거운 5월'

26경기 타율 0.391... 득점권 4할대  
'4번타자' 최형우보다 많은 고의사구  
수비도 안정적...안치홍과 환상호흡



지난 31일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5회초 2사에 KIA 김선빈이 중견수 앞 1루타를 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작은 거인' 김선빈의 뜨거웠던 5월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31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10-2 승리를 거두며, 5월을 17승9패로 마감했다. 0.654의 승률로 1위 독주를 이어간 KIA의 뜨거운 5월에는 하위 타순의 강타자 김선빈이 있었다.

김선빈은 지난 5월 9번, 2번, 7번 등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5월 26경기에 나온 김선빈은 87타수 34안타로 0.391의 타율을 찍으며 오정복(kt·0.432), 박용택(LG·0.392)에 이어 5월 타율 3위에 올랐다.

### 3 김선빈의 성적

- 5월 타율 0.391 '전체 3위'
- 5월 득점권 타율 0.458(시즌 0.442)
- 3타석 연속 고의사구 존재감
- 1460일만에 손맛 '통산 12호'
- 2루타 12개 등 장타율 0.451 '팀내 4위'

김선빈의 5월 득점권 타율은 더 빛났다. 김선빈은 득점권에서 (24타수) 11안타를 터트리면서 0.458의 득점권 타율을 기록했다. 김선빈은 23타수12안타(0.522)의 유한준(kt), 23타수11안타(0.478)의 김태균(한화)등과 '5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올 시즌 전체 득점권 타율을 계산해도 김선빈

은 52타수 23안타로 0.44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로야구 최단신으로 이름을 올려왔던 김선빈은 올 시즌 고의사구 순위권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 28일 연장 11회 승부까지 갔던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세 타석 연속 고의사구로 걸어나가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계속된 거르기에서 "기분이 이상하더라"며 웃은 김선빈은 지난 30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도 9회 고의사구를 얻어내면서 '작은 거인'의 위엄을 과시했다.

폭발적인 결정력 탓에 잇달아 고의사구를 추가한 김선빈은 팀 부동의 4번 타자 최형우(3개)보다 많은 고의사구를 기록하고 있다. SK 와이번스의 홈런 타자 최정(5개)에 이어 '국민 타자' 이승엽(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작은 체격이지만 매서운 스윙을 바탕으로 한 장타 실력도 눈길을 끈다.

지난 5월24일 대전 원정에서 김선빈은 1460일 만에 손맛을 봤다. 이날 9번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선빈은 한화 이글스의 선발 이태양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그라운드를 돌았다. 시즌 첫 홈런이자 지난 2013년 5월25일 NC와의 홈경기 이후 4년 만에 기록된 통산 12호포였다.

올 시즌 2루타도 12개를 수확하는 등 김선빈은 0.451의 장타율로 최형우(0.690), 안치홍(0.509), 나지완(0.467)에 이어 팀내 장타율 4위다.

공격에서만 김선빈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탄탄해진 KIA의 방패의 한 축이 바로 김선빈이다. 스프링 캠프 내내 김민호 수

비 코치의 강도 높은 훈련 속에 안치홍과 손발을 맞췄던 김선빈은 환상적인 '기스톤 콤비' 호흡을 과시하고 있다. 약점으로 꼽혀왔던 뜬공 처리에서도 거침이 없다.

여기에 프로 10년 차의 무게도 느껴진다. 김선빈은 지난 롯데전 최원준의 끝내기 만루포의 숨은 주역이다. 김선빈은 자신의 고의사구로 채워진 두 번의 만루 상황에서 3루수 파울플라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던 최원준에게 "괜찮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집중해서 경기를 하자"며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김선빈의 세 번째 고의사구가 기록된 연장 11회말, 선배의 따뜻한 격려를 받은 최원준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끝내기 만루포로 화답했다.

봄날의 주인공이 된 김선빈이 6월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장재근 홍익대 야구감독 하계U대회 지휘봉 잡아



장재근(53·사진) 홍익대 감독이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야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한국대학야구

연맹은 1일 '기술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6명의 후보를 놓고 고민한 끝에 장재근 홍익대 감독을 사령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최근 2년 국내외 경기실적과 지도자의 통솔력, 경기운영 능력, 품행 등을 평가해 대표팀 감독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장재근 감독은 곧 기술경기력향상위원회와 상의해 코치와 대표 선수를 뽑을 계획이다.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8월 19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 장하나 국내 복귀전 오늘 롯데칸타타女오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어난 장하나가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싫어서다.

2일 제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칸타타여자오픈은 장하나의 국내 복귀전이다.

몸이 아파 LPGA투어도 한 달 이상 쉬 낙번에도 2차례나 고국 나들이에 나서는 등 장 하나는 LPGA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 가운데 유난히 KLPGA투어 대회에 자주 출전한 편이다.

이번 롯데칸타타오픈이 주목받는 이유는 장하나가 아예 LPGA투어 회원권을 반납하고 치르는 첫 국내 대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지애에 이어 LPGA투어 회원권을 가진 반납한 두 번째 한국 선수다. 회원권 반납은 앞으로 LPGA 투어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올해 호주여자오픈 우승으로 2019년까지 LPGA투어 회원 자격을 보장 받은 장하나가 미련없이 회원권을 반납한 데는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는 LPGA투어의 정책도 한몫했다.

LPGA투어는 지난해 '인터내셔널 멤버' 제도를 바꿨다. 이는 투어 카드를 지닌 미국 이외의 국적 선수가 연간 12개 대회만 치르면 LPGA투어 회원 자격을 유지해준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론상으로는 '양다리 투어'가 가능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유럽프로골프투어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용한다. 유럽의 정상급 선수들이 PGA투어와 유럽투어 양쪽 투어 카드를 손에 쥐고 활동할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LPGA 투어는 '인터내셔널 멤버'가 되려면 투어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장 하나는 LPGA투어에서 올해 3번째 뛰었을 뿐이고 또 LPGA투어는 대회 기간에 다른 투어의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억제한다. 한 시즌에 3차례만 허용하고 4번이 넘으면 한 번에 1만 달러씩 벌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 “광주 FC, 부상자 돌아올 후반기 기대”

공격수 조성준 입대  
시즌 2골 '알토란' 활약  
“더 많이 배워 오겠다”

프로 축구 광주 FC의 '알토란' 조성준(27)이 군복무를 위해 잠시 그라운드를 떠난다.

조성준이 1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5주간 군사 훈련을 받는 조성준은 이후 아산 무궁화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지난 2016년 FC안양에서 광주로 이적한 조성준은 두 시즌 동안 44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12경기 나와 홈팬들 앞에서 2골을 넣으며 팀 공격에 힘을 보탤다. 지난해 7월 9일에는 광주에서 프로통산 100경기 출장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뛰어난 스피드와 드리블, 침투능력으로 팀 공격에 역할을 해왔던 조성준은 입소를 앞두고 팀과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냈다.

그는 “지난해보다 골을 더 넣어 부담은 덜 했지만, 제 역할을 다한 건 아니었다.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며 “팀 성적이 좋으면 밀고 쳐진 상황에서 입대하려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조성준은 광주에서 보낸 1년 5개월 동안 선발과 교체 오가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광주를 통해 클래식 무대를 경험했던 만큼 조성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클래식에서 뛰다 보니 실력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걸 얻었고, 광주에 감사하다”며 “동료들과 서로 친했기



에 많이 아쉬워하더라. 특히 최선임인(이)종민이 형이 '나 다음에 너인데 이제 누구랑 노느냐'고 안타까워하더라. 그만큼 매우 친했다. 남기일 감독님께서도 무리하지 말고 무사히 잘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셨다”고 전했다.

조성준이 군 생활을 하게 될 아산 무궁화는 현재 챌린지 3위로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강팀이다. 광주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이요뜸과는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다.

그는 “아산에 아는 선수들이 많았기에 많은 조언을 들었다. 오희이 형은 물론 친구인(최)진수도 많이 이야기를 해줬다”며 “광주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부상자들이 온다면 후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많이 배우고 돌아와 광주에 힘을 주고 싶다”고 작별 인사를 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LA 다저스)이 1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안타와 볼넷 하나만 내주고 삼진 4개를 빼앗으며 1실점으로 막았다. 류현진이 1회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난 선발 체질” 류현진 6이닝 4K 1실점

잠시 불펜으로 밀려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선발 로테이션 재진입에 대해 기대를 하게 했다.

류현진은 1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안타와 볼넷 하나만 내주고 삼진 4개를 빼앗으며 1실점으로 막았다.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6이닝 1실점)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다.

2회 시속 92.3마일(약 148.5km)의 공을 던졌을 뿐 구속은 빠르지 않았지만 체인 지업과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결정구를 섞어가며 상대 타자들을 요리했다. 투구 수는 77개.

류현진은 1-1로 맞선 7회초 타석 때 대타 오스틴 반스로 교체됐다. 승수는 쌓지 못했지만 코칭스태프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투구였다.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었던 알렉스 우드가 흉쇄관절 염증으로 열흘짜리 부상자명단(DL)에 오르면서 잠시 불펜으로 밀려났던 류현진이 다시 선발등판 기회를 잡았다.

류현진은 1회 공 14개로 세 타자를 요리하고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2회 아쉬운 팀 수비로 선제점을 내줬다. 1사 후 토미 팜에게 우전안타를 맞아 처음 출루를 허용한 류현진은 중견수 뜬공으로 원아웃을 잡았지만 중견수와 우익수가 살짝 부딪치는 사이 주자가 2루에 진루했다. 이어 타구 파악을 잘못한 수비수 키를 넘는 중월 2루타로 먼저 점수를 내줬다. 류현진은 알레드미스 디아스를 고의4구로 거른 투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와 우익수 뜬공으로 잡고 추가 실점을 막았다. /연합뉴스

3회를 다시 삼자범퇴로 끝낸 류현진은 4회 헛스윙 삼진으로 2사를 만든 뒤 피스코티에게 2루타를 허용했지만 투수 앞 땅볼로 이닝을 처리했다. 류현진은 5회 삼자범퇴에 이어 1-1로 맞선 6회에도 공 6개로 아웃카운트 세 개를 잡아냈다.

하지만 다저스 타선은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류현전에 이어 던진 로스 스트리플링이 8회말 2사 후 우중월 솔로 홈런을 맞아 1-2이 되자 세인트루이스는 9회초 마무리 투수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려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다.

오승환은 첫 타자 곤살레스에게 빗맞은 좌전안타를 내줬지만 체이스 어틀리를 삼진, 코디 벨리저를 중견수 뜬공, 크리스티에일러를 삼진으로 잡고 시즌 12세이브(1승 2패)를 수확했다. /연합뉴스